

家口主의 年齡과 家計의 消費支出

金正淑*

目 次

- | |
|---------------|
| I. 序 論 |
| II. 理論的인 背景 |
| III. 研究方法 |
| IV. 分析結果 및 論議 |
| V. 結 論 |

I. 序 論

한 가계는 남녀의 결혼으로 성립되어 子女의 出生, 成長 및 獨立 等の 단계를 거치면서 家計構成員數와 그 구성이 변화된다. 家口主의 年齡에 따라 家計의 構成員數는 확대와 축소의 과정을 밟게 되고 家計構成의 性別 및 年齡構成도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가계구성의 변화는 가계에 있어서 欲求, 選好 및 嗜好를 변화시키게 되므로 家計의 消費支出은 家口主의 年齡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家口主의 年齡은 가계의 소비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變數中의 하나로 그 변화는 소비에 대하여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¹⁾.

家計에 있어서 家口主의 年齡은 일반적으로 選好度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 要因들의 차이는 가계의 需要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²⁾, 어떤 品目에 대한 消費支出과 所得間의 關係는 家計構成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家計構成員의 年齡 및 性別分布가 변화할 경우 거기에 따라서 消費支出도 변화하게 될 것이며, 또한 어떤 商品에 대한 消費欲求는 家口主 年

*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Dept. of Home Management,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1) Prais, S. J. and H. S., Houthakker, The analysis of family budget, second impres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pp.146~152.

2) Eastwood, D. B., The economics of consumer behavior, Allyn and Bacon, Inc., 1985, p.137.

에 따라라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즉 家計의 所得水準이 같다고 하더라도 家計構成員數나 그 年齡構成이 다를 경우, 家計의 소비지출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家計구성원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 年齡構成이 다르면 家計의 소비지출은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家口主의 年齡 변화는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의 단계를 반영하게 되므로 라이프 사이클 假說과 關聯하는 實證的인 問題는 家口主 個人的 消費가 그의 年齡에 따라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로 歸結될 수 있다.

이에 本 研究에서는 家口主의 年齡에 따른 家計의 總消費支出 函數와 費目別 消費支出 函數를 추정하여 家口主의 연령변화와 더불어 總消費支出과 費目別 消費支出의 限界消費性向과 所得彈力性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理論的인 背景

최근 몇년 동안 家計構成의 특징과 關聯이 있는 分析的인 研究는 아마 年齡과 라이프 사이클에 관한 연구일 것이다. 家口主의 年齡은 일반적으로 라이프 사이클을 反映하게 되므로 家口主의 年齡에 따라 消費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實證的인 問題는 라이프 사이클 假說과 關聯이 되고 있다.

年齡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초기의 家計研究는 1935~1936년의 消費者 購買研究(consumer purchases study)로서, 年齡要因(age factor)이 消費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跳躍板으로 도움이 되었던 廣範圍한 圖表를 가지고 있었다. 그 연구에서 家族生活週期(family life cycle)의 各 段階에 영향을 미치는 年齡構成 뿐만 아니라 家族類型에 따른 所得과 消費의 變化를 조사하기 위한 여러 試圖들이 있었다³⁾.

年齡과 家計構成에 따른 所得과 消費의 本質적인 變化들이 관찰되므로써 이들 變數들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주로 年齡이나 家族構成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 연구들의 대부분은 미시간대학교 조사연구센터(Survey Research Center of the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수행되었으며 消費者 財政調查(Survey of Consumer Finances)에서 蒐集된 資料에 기초를 두었다.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Fisher⁴⁾는 消費者 行動에 있어서 年齡要因의 효과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많이 개발시킬 수 있었는데, 年齡에 따라 다른 所得 및 流動資産의 規模와 家族의 購買패턴 등에 관한 경험적인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소득은 젊은층에서 中年期 가까이까지 증가하고 그 이후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流動資産은 젊은층에서 中年期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購買패턴에 있어서 보다 젊은 가족들

3) Fisher, R., Research on household behavior,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2, March 1962, pp. 19~63.

4) Fisher, J., Income, spending and saving patterns of consumer units in different age group, *Econometrica*, Vol. 20, Jan. 1952, pp. 47~70.

은 負의 貯蓄을 해야 할지라도 耐久財를 많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반면에 資産을 가진 나 이 많은 가족들은 耐久財를 비교적 적게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다.

Lydall⁵⁾은 英國의 橫斷面 資料를 이용하여 年齡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消費者 行動에 미치는 life cycle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年齡階層이 높아짐에 따라 平均所得은 증가하지만 그러나 老年期에 들어서는 점차 저하되는 특성이 있음을 밝혔으며 이는 美國의 類型과 類似하다고 하였다.

Ando와 Modigliani 等⁶⁾에 의해 발전된 消費函數의 라이프 사이클 假說은 消費者가 그에게 주어진 限界內에서 자신의 效用을 極大化하기 위하여 매년 동일한 消費水準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假說에 基盤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消費는 그 개인에게 유용한 資源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年齡에 의존된다는 것이다.

Strober⁷⁾은 1968年 消費者 財政調查(Survey of Consumer Finances)의 資料를 이용한 연구에서 라이프 사이클의 後期段階에 있는 家計間에는 耐久財에 대한 지출에 있어서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Foster 等⁸⁾은 가족의 라이프 사이클 段階를 남편의 年齡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마지막 단계의 가족(55~64세)은 그 前 段階(35~44세)에 있는 가족들 보다 冷蔵庫, 家具 및 音響設備에 대한 지출이 더 적었다고 하였다.

Ⅲ. 研究 方法

1. 分析資料 및 費目 分類

消費支出에 대한 家口主 年齡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都市家計年報中 都市勤勞者 家계의 家口主 年齡階層別 戶當家計收支를 이용하였으며 分析期間은 1975년⁹⁾에서 1987년까지의 13年間이었다.

모든 所得과 支出資料는 物價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1980年을 不變價格으로 換算하였으며, 家計構成員數의 영향을 고려하여 同質性的의 假定下에 家計構成員數로 디플레이트하여 사용하

- 5) Lydall, H., Family life cycle in Income, saving and asset ownership, *Econometrica*, Vol. 23, Jan. 1955, pp. 28~35.
- 6) Ando, A. and Modigliani, F.,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3, No. 1, pp. 55~84.
- 7) Strober, M. H. and Weinberg, C. B., Working wives and major family expenditures,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4, 1977, pp. 141~146.
- 8) Foster, A. C., Abdel-Ghany, M. and Ferguson, C. E., Wife's employment-Its influence on major family expenditur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Vol. 5, 1981, pp. 115~124.
- 9) 都市勤勞者 家計의 家口主 年齡區分은 1974년까지는 24세以下,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59세, 60세以上의 家計로 分類되었으나, 1975년부터는 그 分類基準이 細分化되었다.

었다.

家口主의 年齡分類는 24세이하,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및 55세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가계비로 지출되는 각 품목들은 12개 비목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비목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이들 각 비목의 效用은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假定되었다.

<表1> 消費支出 費目과 그 내용

비 목	내 용
식 료 품 비	곡류, 육류, 乳卵, 魚介類, 海草, 채소, 과일, 油脂, 조미료, 빵, 과자, 음료, 酒類
외 식 비	食事貨, 飲酒貨, 기타외식
주 거 비	月賃, 주택설비·수리 및 서비스, 기타주거비
광 열·수 도 비	수도료, 전기료, 연료
가 구 집 기 가 사 용 품 비	일반가구, 가정용가구, 食器廚房用品, 家事雜貨, 소모품 寢具 및 織物製品, 가사서비스
피 복·신 발 비	外衣, 스웨터, 셔츠, 內衣, 織物실, 其他被服, 신발, 피복 및 신발서비스
보 건 의 료 비	의약품, 保健醫療用品器具, 보건의료서비스
교 육 비	납입금, 기타교육비
교 양 오락 비	신문도서, 教養娛樂用器具, 교양오락서비스, 문방구
교 통 통 신 비	공공교통, 개인교통, 통신비
기 타 소 비 지 출	담배, 理·美容, 燙身具
잡 비	慶弔費, 宗教關係費, 회비 및 교제비, 冠婚喪祭費, 기타잡비

2. 基本方程式

현재까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적절한 消費函數型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總消費支出函數를 계측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지출을 現在所得의 函數로 보는 Keynes의 假說을 기본으로 하여 가계의 총소비지출은 可處分所得의 函數이며 線型關係를 가지는 것으로 假定되었다.

한편 費目別 消費支出函數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直線型 Engel curve를 사용하였다. 비목별 소비지출함수를 나타내는 Engel curve에 관한 이론이나 여러 경험적인 연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든 품목에 대하여 적절한 Engel curve의 函數形態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直線型이 다른 형에 비하여 높은 說明力을 가지고 있는 비목들이 많은 경

향이 있었으므로¹⁰⁾ 본 분석에서는 直線型的 Engel curve를 이용하여 비목별 소비지출함수와 所得彈力性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總消費支出函數와 費目別 消費支出函數 및 所得彈力性을 推定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C_a = a_i + b_i Y_{ad} + U_i \dots \dots \dots (6-1)$$

$$X_{ai} = \alpha_i + \beta_i Y_{ap} + U_i \dots \dots \dots (6-2)$$

$$\eta = \beta_i \cdot Y_{ap} / X_{ai} \dots \dots \dots (6-3)$$

여기에서 C_a 는 a 年齡階層 家計의 1人當 實質總消費支出額, Y_{ad} 는 a 年齡階層 家計의 1人當 實質可處分所得, X_{ai} 는 a 年齡階層 家計의 1人當 i 費目에 대한 實質消費支出額, Y_{ap} 는 a 年齡階層 家計의 1人當 豫測된 實質總消費支出額, η 는 所得彈力性 係數, U_i 는 誤差項을 나타낸다.

3. 說明變數

일반적으로 가계의 支出資料로 각 상품에 대한 소비지출을 推定할 경우, 가계의 現在所得¹¹⁾이나 혹은 가계의 總消費支出額¹²⁾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現在所得의 사용은 Friedman (1957)의 恒常所得假說¹³⁾에 의하면 測定誤差를 가져오게 되고, 總消費支出額의 사용은 Summers¹⁴⁾

- 10) 裴然秀, 韓在淑, 金正淑, 家계분석에 있어서 Engel curve의 함수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4), 1990, pp.87~101.
- 11) 金美香, 都市家計의 食品 消費構造分析, 嶺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9. 薛鳳植, 韓國家計의 消費行爲, 創文閣, 1978., 崔銀淑, 家計消費支出의 構造變化와 決定要因分析,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6., Hafstrom, J. L. and Dunsing, M. M., Satisfaction and education: A new approach to understanding consumption pattern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1, No.1, 1972, pp.4~12., Hager, C. J. and Bryant, W. K., Clothing expenditures of low income rural familie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Vol.11, No.2, 1977, pp.127~132., Abdel-Ghany, M. and Foster, A. C., Impact of income and wife's education on family consumption expenditur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Vol.6, 1982, pp.21~28., Horton, S. E. and Hafstrom, J. L., Umcome elasticities for selected consumption categories: Comparison of single female-headed and tow parent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13, No.3, 1985, pp.292~303.
- 12) 金英淑, 王仁淑, 都市家庭의 被服類 消費支出 分析, 大韓家政學會誌, 第2卷, 第4號, 1989, pp.21~39., Dardis, R., Derrick, F. and A. Leheld, Clothing demand in the United States: A cross-sectional analysi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10, No.2, 1981, pp.212~222., Wagner, J. S., Family clothing consumption: A cross-sectional comparison of family life cycle and family composition models, ph.D. Dessertation, Kansas State Univ., 1982., Wagner, J. and Hanna, S., The effectiveness of family life cycle variables in consumer expenditure research,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0, No.3, 1983, pp.281~291., Wagner, J. S. and S. Hanna, *op. cit.*, pp.281~291.
- 13) Friedman, M., A theory of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 14) Summers, R., A note on least squares bias in household expenditur analysis, *Econometrica*, Vol.27, 1959, pp.121~126.

에 의해 異意가提起되었다. 그에 의하면 총소비지출액과 그 총소비지출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에 대한 소비지출액은 모두 소비자에게 內生的이며 그리고 동시에 결정되기 때문에 총소비지출액을 설명변수로 사용할 경우 不便性을 가지지 못하는 추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Summers의 분석을 기초로 Liviatan¹⁵⁾은 總消費支出額을 說明變數로 사용할 경우에 있어서 一致性을 가지는 파라메타를 추정하기 위하여 現在所得을 手段變數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2段階 最少自乘(two-stage least squares) 方法¹⁶⁾으로 편리하게 유도될 수 있으며, 여러 연구자들¹⁷⁾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

本 分析에서도 2段階 最少自乘 方法을 이용하여 비목별 소비지출함수를 추정하였다. 手段變數로 사용된 現在所得으로는 가계의 可處分所得을 이용하였으며 예측된 총소비지출액은 恒常所得 概念으로 사용되었다.

4. 誤差項의 自己相關 除去

說明變數가 시간을 나타낼 때는 殘差分析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론적으로 回歸模型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殘差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량 경제학에서는 오차의 自己相關의 원인¹⁸⁾을, 첫째, 模型에 포함되지 않는 설명변수에 기인하는 경우, 둘째, 경제관계의 수학적인 방정식 형태를 잘못 설정하여 발생하는 경우, 셋째, 誤差項이 시간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本 時系列 分析의 回歸式에서의 自己相關은 세번째 원인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보고, 본래의 觀測值들을 변환하여 確率變數가 OLS 假定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수정한 다음 다시 OLS 推定을 적용하였다¹⁹⁾. 自己相關係數 ρ 의 推定值 $\hat{\rho}$ 는 $\hat{\rho} = \{n^2(1-d/2) + k^2\} / (n^2 - k^2)$ 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²⁰⁾. 여기에서 n 는 觀測值의 數, d 는 Durbin-Watson 통계량, k 는 常數項을 포함하여 추정되어

15) Liviatan, N., Errors in variables and Engel curve analysis, *Econometrica*, Vol. 29, No. 3, 1961, pp. 336~362.

16) 제1단계에서 現在所得을 說明變數로 하여 最少自乘法으로 總消費支出額을 예측한 후 제2단계에서는 그 예측된 총소비지출액을 설명변수로 하여 다시 추정하는 것이다.

17) 徐相穆, 民間消費支出 形態의 分析, 韓國開發研究, 第2卷, 第4號, 1980, pp. 126~145., Lee, F. and K. E. Phillips, Differences in consumption patterns of farm and nonfarm household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53, 1971, pp. 573~582., Podder, N., Patterns of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s in australia, *The Economic Record*, Vol. 47, 1974, pp. 379~398., Hassan, Z. A.,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s in Canada, *Canadi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22, No. 2, 1974, pp. 61~78., Horton, S. E. and J. L. Hafstrom, *op. cit.*, pp. 292~303.

18) Johnston, J., *Econometric methods*, 3rd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84, pp. 309~310.

19) 朴聖炫, 回歸分析, 大英社, 1989, pp. 327~329., Cochrane, D. and G. H. Orcutt, Application of least squares regression to relationships containing autocorrelated error term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 44, 1949, pp. 32~61.

20) 朴聖炫, *op. cit.*, pp. 130~134.

야 할 係數의 數를 의미한다.

IV. 分析結果 및 論議

1. 年齡階層別 總消費支出函數

家口主의 年齡階層別로 家計의 總消費支出函數를 추정한 결과는 <表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2>에 의하면 家口主의 年齡에 따라 家計의 總消費支出額의 限界消費性向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구주의 年齡階層別로 비교해 보면, 24세 이하 家計의 限界消費性向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약 0.7정도 였으며, 20대 후기에서 30대까지는 年齡階層間에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40세 이후의 家計에서는 약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55歲 以上 家計의 限界消費性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45~49세 家計였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家口主 年齡에 따른 總消費支出額의 限界消費性向은 젊은층의 家計에 비하여 中年層의 家計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老年期 家計의 限界消費性向이 다른 家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家計는 家口主의 年齡段階에 따라 家計構成員數와 그 年齡構成이 변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表 2> 年齡階層別 總消費支出函數

家口主 年齡	α_i		β_i	R^2	F	D-W
24세 以下	5577.532 (6.765)	+	0.712 Yd (42.635)	0.994	1817.735	2.142
25~29세	5659.457 (9.681)	+	0.656 Yd (69.534)	0.998	4835.014	2.117
30~34세	4116.267 (6.735)	+	0.654 Yd (61.961)	0.997	3839.228	1.761
35~39세	5082.116 (9.685)	+	0.658 Yd (68.110)	0.998	4638.919	2.228
40~44세*	1391.393 (1.776)	+	0.716 Yd (40.210)	0.981	502.947	1.863
45~49세	7534.098 (9.600)	+	0.766 Yd (49.005)	0.995	2401.510	1.337
50~54세	7181.848 (7.398)	+	0.705 Yd (42.772)	0.994	1829.411	1.342
55세 以上	2427.232 (1.283)	+	0.788 Yd (24.539)	0.982	602.140	1.458

1) () 내는 t 統計量으로, $t_{11:0.025}=2.201$, $t_{11:0.005}=3.106$ 이다.

2) * 는 誤差項의 自己相關을 제거한 回歸式이다.

家計의 慾求, 嗜好 및 選好가 달라지게 된다. 中年期 家計는 子女가 成長하여 子女의 年齡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들의 慾求나 嗜好, 選好 등이 커지게 되므로서 더 많은 지출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老年期 家計는 子女의 養育, 成長으로 인하여 그동안 보류했던 지출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限界消費性向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費目別 消費支出의 分析

1) 食料品費의 消費支出

가구주의 年齡階層別로 食料品費의 消費支出函數를 추정한 결과는 <表 3> 과 같다. 24세 이하, 25~29세, 50~54세 가계의 경우는 誤差의 自己相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나 觀測值들을 變換하여 推定한 결과 $p < 0.01$ 水準에서 自己相關이 없다는 統計的 證據를 제시해 주었으며 說明力도 높았다.

食料品費에 대한 所得彈力性은 모든 年齡階層에서 1보다 작아 非彈力的이었으며, 각 年齡階層 간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한편 食料品費의 限界消費性向은 家口主의 年齡이 증가함에 따라 40~44세 가계까지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40~44세 가계의 限界消費性向이 가장 높았다. 그 이후 연령의 가계에서는 家口主 年齡의 증가와 더불어 점차 감소하였으나 老年期 家計에서는 오히려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表 3> 年齡階層別 食料品費의 消費支出函數

家口主 年齡	α_1		β_1	R ²	F	D-W	彈力性
24세 以下*	3777.195 (6.857)	+	0.151 Yp (5.574)	0.757	31.072	1.841	0.40
25~29세*	3813.117 (6.514)	+	0.175 Yb (6.785)	0.822	46.043	2.045	0.47
30~34세	6952.626 (15.415)	+	0.218 Yp (20.217)	0.974	408.739	1.067	0.55
35~39세	6202.694 (12.444)	+	0.234 Yp (19.018)	0.970	361.690	1.119	0.59
40~44세	6183.125 (14.060)	+	0.245 Yp (22.111)	0.978	488.893	1.484	0.59
45~49세	6426.634 (14.779)	+	0.214 Yp (22.483)	0.979	505.465	1.686	0.59
50~54세*	2238.733 (8.491)	+	0.190 Yp (13.189)	0.946	173.960	1.789	0.54
55세 以上	6544.327 (13.316)	+	0.226 Yp (22.404)	0.979	501.944	2.469	0.60

1) () 내는 t 統計量으로, $t_{11:0.025}=2.201$, $t_{11:0.005}=3.106$ 이다.

2) * 는 誤差項의 自己相關을 제거한 回歸式이다.

食料品은 生活에 있어서 가장 必需的인 品目으로서 成人과 成長期에 있는 어린이들은 營養의인 要求量이 다를 뿐만 아니라 嗜好도 다르다. 따라서 家計의 食料品費는 家計의 구성원수와 그 年齡構成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成長期內에 있는 자녀들은 그들의 年齡 增加와 함께 더 많은 量의 食料品을 필요로 하게 된다. 子女의 年齡은 家口主 年齡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요인이 家口主의 年齡增加와 더불어 食料品의 限界消費性向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中年期 이후의 家計는 子女들이 거의 成長하고 난 후이므로 더 이상의 많은 食料品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므로 家口主 年齡의 증가와 더불어 食料品費의 限界消費性向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띄게 되지만, 그러나 老年期の 家計에서는 家口主 自身들의 健康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인하여 食料品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 限界消費性向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2) 外食費의 消費支出

年齡階層別 外食費의 消費支出函數를 추정한 결과는 <表 4>와 같으며 모든 回歸方程式은 상당히 높은 說明力을 가지고 있었다. 家口主 年齡에 따른 外食費 支出의 限界消費性向은 食料品費의 경우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냈다. 즉 外食費의 限界消費性向은 25~29세의 家計가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의 家計에 있어서는 家口主 年齡의 증가와 더불어 점차 감소하여 젊은층의 家計일 수록 오히려 더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25~29세 家計의 外食費의 限界消費性向은 55세 이상의 家計에 비하여 거의 2배에 가까웠다. 이러한 결과는 食料品費의 限界消費性向이 젊은층 家計

<表 4> 年齡階層別 外食費의 消費支出函數

家口主 年齡	α_1		β_1	R ²	F	D-W	彈力性
24세 以下	-1101.691 (-6.110)	+	0.051 Yp (11.524)	0.924	132.803	1.234	2.93
25~29세*	-1012.599 (-4.618)	+	0.078 Yp (7.924)	0.863	62.791	1.519	3.39
30~34세*	-834.640 (-4.396)	+	0.066 Yp (7.681)	0.855	59.004	1.547	3.46
35~39세	-945.624 (-5.407)	+	0.047 Yp (10.948)	0.916	119.869	1.134	2.46
40~44세	-834.560 (-7.254)	+	0.044 Yp (15.281)	0.955	233.519	1.319	2.43
45~49세	-1108.047 (-8.090)	+	0.044 Yp (14.550)	0.951	211.693	1.258	3.05
50~54세	-1176.739 (-4.670)	+	0.046 Yp (8.873)	0.877	78.725	1.207	2.87
55세 以上	-902.623 (-5.775)	+	0.039 Yp (12.097)	0.930	146.345	1.832	2.82

1) () 내는 t 統計量으로, $t_{11:0.025}=2.201$, $t_{11:0.005}=3.106$ 이다.

2) * 는 誤差項의 自己相關을 제거한 回歸式이다.

보다는 中年層 家計와 老年層 家計가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낸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또한 外食費의 所得彈力性은 모든 年齡層에 있어서 아주 彈力的이었다. 限界消費性向과 마찬가지로 家口主의 年齡이 젊은층의 가계일 수록 일반적으로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어 25~29세와 30~34세의 家計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모든 年齡階層에 있어서 外食費는 選擇財로서 所得變化에 아주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대 後半에서 30대 初半에 있는 가계에 있어서 외식비의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탄력성이 다른 가계에 비하여 높은 것은 가구주 연령이 젊은 가계들이 外食을 더욱 選好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 住居費의 消費支出

年齡階層別 住居費의 消費支出函數는 <表 5>에 나타낸 바와 같다. 25~29세, 30~34세 및 55세 이상의 가계에 있어서는 誤差項에 自己相關이 존재하여 資料를 變換하여 추정한 결과, 모두 說明力이 너무 낮아 直線型 Engel curve의 有用限界性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30~34세 가계와 55세 이상의 가계에서는 추정된 係數가 5% 有意水準에서 무의미하였다. 그 이외의 年齡階層에 있어서는 說明力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誤差의 自己相關도 존재하지 않았다.

住居費의 限界消費性向은 24세의 가계가 가장 높았으며 35~39세 家計에서 45~49세 가계까지는 家口主 年齡의 증가와 더불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50~54세의 가계에서는 다시 증가하였다. 한편 住居費의 所得彈力性은 35~39세, 40~44세, 45~49세 가계에 있어서는 1에 가까

<表 5> 年齡階層別 住居費의 消費支出函數

家口主 年齡	α_i		β_i	R^2	F	D-W	彈力性
24세 以下	-796.090 (-3.360)	+	0.075 Y_p (12.848)	0.938	165.059	1.831	1.49
25~29세*	377.329 (1.544)	+	0.031 Y_p (2.528)	0.390	6.389	1.416	0.61
30~34세*	261.336 (2.012)	+	0.022 ³⁾ Y_p (1.986)	0.283	3.943	2.502	-
35~39세	91.644 (0.400)	+	0.041 Y_p (7.225)	0.826	52.194	1.181	0.98
40~44세	99.261 (0.739)	+	0.038 Y_p (11.256)	0.920	126.696	1.727	0.94
45~49세	112.832 (0.513)	+	0.030 Y_p (6.230)	0.779	38.808	1.457	0.94
50~54세	-630.479 (-2.693)	+	0.044 Y_p (9.164)	0.884	83.988	2.733	1.65
55세 以上	304.564 (1.123)	+	0.016 ³⁾ Y_p (1.155)	0.118	1.333	1.358	-

1) () 내는 t 統計量으로, $t_{11; 0.025} = 2.201$, $t_{11; 0.005} = 3.106$ 이다.

2) * 는 誤差項의 自己相關을 제거한 回歸式이다.

3) β_i 係數가 統計的으로 無意味하므로 의미가 없다.

은 값을 가지고 있어 中間財의 性格을 나타냈으나, 24세 이하의 가계와 50~54세 가계에서는 상당히 彈力的으로서 奢侈財의 性格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家口主 年齡이 젊을 수록 月賃家計가 많으므로 住居費 中에서 月賃가 차지하는 比率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家口主 年齡의 증가와 더불어 傳賃나 혹은 자기집을 가지게 되는 比率이 높아지게 되면서, 月賃의 負擔은 감소하게 되고 반면에, 住宅의 設備受理費는 증가하게 된다²¹⁾. 따라서 24세이하의 家計는 月賃의 負擔으로 인하여 住居費의 限界消費性向이 높을 뿐만 아니라 또한 所得에 대해서도 아주 彈力的으로 反應하게 된다. 그 반면에 50~54세의 家計는 月賃의 負擔은 적어 졌으나 住宅設備受理費로 인하여 住居費의 限界消費性向은 높아지게 되고 또한 所得變化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光熱水道費의 消費支出

光熱水道費의 消費支出函數는 모든 年齡 階層에 있어서 비교적 說明力이 높은 편이었는데 그 추정 결과는 <表 6>과 같다. 光熱水道費의 限界消費性向은 24세 이하의 家計가 다른 年齡階層에 비하여 약간 낮은 경향을 나타냈으나 그 이외의 모든 年齡階層에 있어서는 年齡階層間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所得彈力性도 年齡階層間에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모든 年齡階層에서 1보다 낮아

表 6) 年齡階層別 光熱·水道費의 消費支出函數

家口主 年齡	α_i		β_i	R ²	F	D-W	彈力性
24세 以下*	370.750 (2.070)	+	0.047 Y _p (5.749)	0.768	33.048	1.291	0.80
25~29세	733.947 (3.326)	+	0.051 Y _p (10.727)	0.913	115.074	1.118	0.75
30~34세	625.657 (3.459)	+	0.054 Y _p (12.580)	0.935	158.266	1.422	0.77
35~39세	666.394 (3.484)	+	0.052 Y _p (11.026)	0.917	121.583	1.177	0.75
40~44세	644.423 (4.186)	+	0.054 Y _p (13.863)	0.946	192.174	1.147	0.75
45~49세	625.126 (2.478)	+	0.050 Y _p (9.046)	0.882	81.832	1.186	0.78
50~54세	504.656 (1.782)	+	0.053 Y _p (9.081)	0.882	82.461	1.301	0.82
55세 以上	498.424 (2.181)	+	0.056 Y _p (12.026)	0.929	144.625	1.904	0.83

1) () 내는 t 統計量으로, $t_{11; 0.025} = 2.201$, $t_{11; 0.005} = 3.106$ 이다.

2) * 는 誤差項의 自己相關을 제거한 回歸式이다.

21) 住居費의 構成을 보면, 24세이하의 가계에 있어서는 月賃가 87%, 住宅設備修理費가 9.8%였으나 50~55세 가계에 있어서는 月賃가 27.0%, 住宅設備修理費가 64.39%였다(1987년 자료).

非彈力的이었으며 必需的인 費目이었다.

5) 家具什器·家事用品費의 消費支出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消費支出函數는 모든 年齡階層에 있어서 說明力이 대단히 높았으며 추정결과는 <表 7>과 같다. <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限界消費性向은 25~29세의 가계가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 50~54세의 가계까지는 家口主의 年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55세 이상의 가계에 있어서는 다시 증가하였다. 所得에 대한 彈力性은 모든 年齡階層에 있어서 상당히 彈力的이었는데, 24세 이하의 가계와 55세 이상의 가계가 가장 높았으며 그 이외의 가계는 年齡階層間에 큰 차이가 없었다.

新婚家庭이나 혹은 젊은 年齡層의 가계는 우선 당장 必要的인 家庭用器具나 食器·廚房用品 등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가구집기·가사용품비에 대한 消費支出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되므로 다른 年齡階層에 비하여 限界消費性向이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家庭用 器具나 일반 家具類는 耐久財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번 구입을 하면 일정기간 동안은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家口主의 年齡이 증가함에 따라 家庭에서 필요한 設備들이 갖추어지게 되면서 限界消費性向은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老年期의 가계에서는 限界消費性向과 所得彈力性이 다시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그동안 사용해 온 家庭用 器具나 家具들을 교환하기 위하여 새로 구입하게 되거나 혹은 高價品의 物品들을 구입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表 7> 年齡階層別 家具什器·家事用品費의 消費支出函數

家口主 年齡	α_i		β_i	R ²	F	D-W	彈力性
24세 以下	-1500.560 (-4.343)	+	0.095 Y _p (11.107)	0.918	123.360	1.813	2.10
25~29세	-1726.717 (-4.431)	+	0.104 Y _p (12.259)	0.932	150.274	1.596	1.75
30~34세	-1457.571 (-6.025)	+	0.096 Y _p (16.608)	0.962	275.840	1.504	1.84
35~39세	-1352.723 (-5.451)	+	0.093 Y _p (15.183)	0.954	230.520	2.091	1.78
40~44세	-1046.005 (-5.055)	+	0.084 Y _p (16.057)	0.959	257.826	1.979	1.61
45~49세	-1308.036 (-6.073)	+	0.077 Y _p (16.342)	0.960	267.067	2.464	1.74
50~54세	-1055.259 (-2.870)	+	0.068 Y _p (8.984)	0.880	80.713	1.536	1.66
55세 以上	-1814.208 (-4.507)	+	0.088 Y _p (10.678)	0.912	144.019	1.604	2.18

1) () 내는 t 統計量으로, $t_{11:0.025} = 2.201$, $t_{11:0.005} = 3.106$ 이다.

6) 被服·신발비의 消費支出

年齡階層別로 被服·신발비의 消費支出函數를 推定한 結果는 <表 8>과 같다. 被服·신발비에 대한 限界消費性向은 24세 이하의 家計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25~29세 家計였으며, 50~55세 가계의 限界消費性向이 가장 낮았다. 그 이외의 年齡階層間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被服·신발비의 所得彈力性은 24세 이하의 階層에서는 거의 1에 가까웠으나 그 이외의 모든 年齡階層에서는 1보다 작았다. 따라서 被服費는 24세 이하의 階層에서는 中間財의 性格을 띄고 있었으나 그 이외의 모든 年齡階層에 있어서는 必需財의 性格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年齡階層間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었다.

<表 8> 年齡階層別 被服·신발비의 消費支出函數

家口主 年齡	α_i		β_i	R^2	F	D-W	彈力性
24세 以下	184.236 (0.552)	+	0.098 Y_p (11.868)	0.928	140.853	1.117	0.96
25~29세*	133.175 (0.375)	+	0.082 Y_p (4.786)	0.696	22.905	1.239	0.66
30~34세*	161.596 (0.636)	+	0.077 Y_p (4.626)	0.682	21.397	1.035	0.83
35~39세*	268.442 (1.008)	+	0.079 Y_p (5.811)	0.772	33.768	1.821	0.85
40~44세*	450.287 (3.648)	+	0.072 Y_p (12.407)	0.939	153.925	1.481	0.73
45~49세*	363.768 (0.998)	+	0.070 Y_p (4.156)	0.633	17.275	1.670	0.78
50~54세	1258.486 (2.111)	+	0.060 Y_p (5.002)	0.695	25.019	1.100	0.70
55세 以上	759.557 (1.453)	+	0.072 Y_p (6.683)	0.802	44.657	1.375	0.82

1) () 내는 t 統計量으로, $t_{11:0.025}=2.201$, $t_{11:0.005}=3.106$ 이다.

2) * 는 誤差項의 自己相関을 제거한 回歸式이다.

7) 保健醫療費의 消費支出

年齡階層別 保健醫療費의 消費支出函數를 推定한 結果는 <表 9>와 같다. 保健醫療費의 限界消費性向은 일반적으로 中年層의 가계에서 낮고 젊은층의 家計와 老年層의 가계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35~39세 가계의 限界消費性向이 가장 낮았으며, 이 가계를 중심으로 家口主 年齡이 적어지거나 많아질 수록 限界消費性向을 높아졌는데, 家口主 年齡이 젊을 수록 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所得彈力性도 限界消費性向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35~39세의 가계에서는 그 彈力性 값이 1로서 中間財의 性格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이외의 年齡層의 가계에 있어서는 모두 彈力的이었으며 50~54세의 가계에서 가장 높았다.

〈表 9〉 年齡階層別 保健醫療費의 消費支出函數

家口主 年齡	α_1		β_1	R^2	F	D-W	彈力性
24세 以下	- 502. 206 (-2. 348)	+	0. 068 Yp (12. 944)	0. 938	167. 549	1. 657	1. 29
25~29세	-2364. 567 (-3. 574)	+	0. 136 Yp (9. 500)	0. 891	90. 249	1. 160	1. 81
30~34세*	- 438. 813 (-0. 959)	+	0. 113 Yp (4. 975)	0. 712	24. 754	1. 904	1. 69
35~39세*	143. 912 (0. 543)	+	0. 067 Yp (4. 567)	0. 676	20. 861	1. 324	1. 00
40~44세*	- 445. 857 (-3. 336)	+	0. 090 Yp (13. 388)	0. 947	179. 238	1. 149	1. 53
45~49세	-1750. 913 (-5. 660)	+	0. 091 Yp (13. 516)	0. 943	182. 673	1. 404	1. 93
50~54세	-2122. 072 (-5. 031)	+	0. 102 Yp (11. 708)	0. 926	137. 067	1. 216	2. 12
55세 以上	-1547. 206 (-2. 977)	+	0. 095 Yp (8. 944)	0. 879	79. 998	2. 748	1. 80

1) () 내는 t統計量으로, $t_{11:0.025} = 2.201$, $t_{11:0.005} = 3.106$ 이다.

2) * 는 誤差項의 自己相關을 제거한 回歸式이다.

일반적으로 家口主 年齡이 25~29세 및 30~34세인 젊은 층의 가계에 있어서는 子女의 出産과 育兒로 인하여 保健醫療費에 대한 支出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지만, 子女가 어느정도 성장하게 되는 35~39세의 가계에 있어서는 子女의 醫療費에 대한 요구는 적어지게 된다. 그러나 家口主 年齡이 더욱 많아지게 되면, 그 때는 자신들의 健康維持와 健康管理을 필요로 하게 되고 또한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다시 醫療費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要因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保健醫療費의 限界消費性向과 所得彈力性은 家口主 年齡에 따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8) 教育費의 消費支出

年齡階層別 教育費의 消費支出函數는 〈表 10〉에서와 같이 55세 이상 가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說明力이 아주 낮았으나 그 이외의 年齡階層의 가계에 있어서는 說明力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교육비의 限界消費性向은 家口主 年齡의 증가와 더불어 45~49세의 가계까지는 계속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의 年齡階層에 있어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연령계층간에 큰 차이를 나타냈다. 25~29세의 가계가 가장 낮았으며 45~49세 가계가 가장 높았는데, 45~49세 가계의 教育費의 限界消費性向은 25~29세 가계의 약 9배 정도 되었다. 한편 教育費의 所得彈力性도 年齡階層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25~29세, 40~44세, 50~54세 및 55세 이상의 가계에서는 모두 所得彈力性이 1보다 적어서 教育費는 비탄력적으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비목이었으나, 24

세 이하와 30~34세의 가계에 있어서는 약간 탄력적이었으며, 45~49세의 가계에서는 中間財의 性格을 띄고 있었다. 教育費의 所得彈力性은 35~39세의 가계에 있어서 가장 높았는데 아주 彈力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結果로 教育費의 限界消費性向과 所得彈力性은 모두 家口主의 年齡에 따라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아마 教育費가 子女의 成長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子女의 年齡이 아주 어릴 때에는 子女의 教育에 대한 要求가 낮아 教育費의 負擔이 아주 적기 때문에 教育비는 所得에 대하여 비교적 안정적이며 限界消費性向도 낮다. 그러나 家口主의 年齡이 증가함에 따라 子女의 연령도 증가하게 되므로, 子女의 教育費에 대한 要求는 점점 커지게 되고 소득의 증가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즉 子女들이 어느정도 성장하여 特技教育이나 敎養教育等 課外活動을 하게 될 경우, 가계에 있어서 教育費는 所得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는 소득이 증가할 경우에 所得의 增加比率 이상으로 教育費의 支出比率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子女가 中等教育을 받게 되면, 이러한 課外活動으로 인한 教育費의 負擔은 적어지고 學校 教育費의 負擔이 증가하게 되므로 教育費는 오히려 所得에 대하여 안정적이 되고 必需的인 費目이 된다. 그러나 子女가 大學教育을 받게 되면, 學校 教育費의 負擔이 훨씬 더 커지게 되므로 가계에 있어서 教育費의 지출은 가장 커지게 되고, 소득이 증가할 경우 所得의 增加率 만큼 教育費의 지출비율을 증가시키게 된다. 가계는 이 시기를 절점으로 하여 그 후 子女들의 教育이 점차 끝나게 되면서 가계의 教育費는 소득에 대하

(表 10) 年齡階層別 教育費의 消費支出函數

家口主 年齡	α_i		β_i	R^2	F	D-W	彈力性
24세 以下	-254.686 (-1.404)	+	0.062 Y_p (13.832)	0.946	191.318	1.590	1.13
25~29세	132.054 (0.894)	+	0.013 Y_p (4.116)	0.606	16.939	1.450	0.82
30~34세*	-371.680 (-3.273)	+	0.027 Y_p (6.153)	0.791	37.863	2.179	1.10
35~39세*	-368.062 (-2.074)	+	0.061 Y_p (5.587)	0.757	31.212	1.510	1.82
40~44세	922.267 (3.282)	+	0.058 Y_p (8.159)	0.858	66.576	1.180	0.70
45~49세	29.994 (0.069)	+	0.113 Y_p (11.913)	0.928	141.930	1.218	1.00
50~54세	701.780 (1.495)	+	0.092 Y_p (9.467)	0.891	89.627	1.580	0.86
55세 以上	188.513 (0.344)	+	0.061 Y_p (2.604)	0.404	6.779	1.634	0.80

1) () 내는 (統計量으로, $t_{11;0.025} = 2.201$, $t_{11;0.005} = 3.106$ 이다.

2) * 는 誤差項의 自己相關을 제거한 回歸式이다.

여 안정적으로 되고 限界消費性向도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9) 教養娛樂費의 消費支出

教養娛樂費의 消費支出函數를 推定한 결과는 <表 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25~29세의 家計에 있어서는 方程式의 說明力이 낮은 편이었으나 그 이외의 家計에서는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教養娛樂費의 限界消費性向은 40~44세의 家計까지는 家口主 年齡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그 변화의 정도가 아주 적어 家口主 年齡階層間에 거의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40~44세 家計를 기준으로 그 보다 젊은 年齡階層의 家計들의 限界消費性向이 그 이후의 家計들의 限界消費性向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教養娛樂費의 所得彈力性은 모든 年齡階層에 있어서 아주 彈力的이었는데 25~29세의 家計가 가장 높았으며 45~49세, 50~54세 家計의 彈力性이 다른 年齡階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것은 40~44세의 家計를 중심으로 젊은 年齡層의 家計들이 일반적으로 餘暇에 대한 관심이 많고 餘暇活動이 活潑하기 때문일 것이다. 45~49세와 50~54세 家計의 限界消費性向과 所得彈力性이 다른 年齡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子女들의 성장으로 인하여 教育費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고 가족들의 餘暇에 대한 關心度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老年層이 되면 團體旅行이 많아지고 溫泉 등으로 休養을 가게 되므로서 다시 教養娛樂費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表 11> 年齡階層別 教養娛樂費의 消費支出函數

家口主 年齡	α_1		β_1	R ²	F	D-W	彈力性
24세 以下	-1168.235 (-4.429)	+	0.064 Yp (9.754)	0.896	95.146	1.499	2.26
25~29세*	-607.616 (-1.780)	+	0.076 Yp (3.834)	0.595	14.699	1.344	2.63
30~34세*	-677.276 (-2.196)	+	0.078 Yp (4.628)	0.682	21.422	1.889	2.18
35~39세	-1440.307 (-4.878)	+	0.079 Yp (10.828)	0.914	116.806	1.062	2.21
40~44세*	-613.881 (-2.913)	+	0.083 Yp (6.521)	0.810	42.526	1.269	2.24
45~49세	-561.602 (-2.005)	+	0.046 Yp (7.530)	0.838	56.701	1.203	1.45
50~54세	-731.986 (-2.217)	+	0.049 Yp (7.110)	0.821	50.557	1.710	1.64
55세 以上*	-592.237 (-1.864)	+	0.056 Yp (4.362)	0.655	19.025	1.803	2.05

1) () 내는 t統計量으로, $t_{11;0.025} = 2.201$, $t_{11;0.005} = 3.106$ 이다.

2) * 는 誤差項의 自己相關을 제거한 回歸式이다.

10) 交通通信費의 消費支出

〈表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交通通信費의 消費支出函數는 모든 年齡層에 있어서 說明力이 아주 높은 편이었으며 誤差의 自己相關도 존재하지 않았다.

交通通信費의 限界消費性向과 所得彈力性은 모두 젊은층의 家計가 中年層이나 老年層의 家計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交通通信費의 限界消費性向은 30~34세의 家計가 다른 家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家口主 年齡의 증가와 더불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年齡階層間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한편 所得彈力性은 35~39세 家計를 중심으로 그 보다 젊은층의 家計에 있어서는 약간 彈力的이었으나 그 이후의 年齡階層의 家計에서는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어 交通通信費는 中間財의 性格을 가지고 있었다.

〈表 12〉 年齡階層別 交通通信費의 消費支出函數

家口主 年齡	α_i		β_i	R^2	F	D-W	彈力性
24세 以下	-343.962 (-1.857)	+	0.075 Y_p (16.470)	0.961	271.248	1.529	1.16
25~29세	-432.994 (-2.513)	+	0.074 Y_p (19.885)	0.973	395.402	1.782	1.16
30~34세	-794.942 (-7.950)	+	0.077 Y_p (32.162)	0.989	1034.386	2.593	1.48
35~39세	-520.779 (-3.908)	+	0.067 Y_p (20.355)	0.974	414.336	1.731	1.29
40~44세	-142.214 (-1.066)	+	0.064 Y_p (19.130)	0.971	365.958	1.784	1.06
45~49세	-172.172 (-0.913)	+	0.066 Y_p (15.892)	0.958	252.530	2.595	1.08
50~54세	83.691 (0.249)	+	0.063 Y_p (9.133)	0.883	83.412	1.295	0.98
55세 以上	-91.711 (-0.346)	+	0.069 Y_p (12.697)	0.936	161.220	2.714	1.05

1) () 내는 t統計量으로, $t_{11:0.025} = 2.201$, $t_{11:0.005} = 3.106$ 이다.

11) 其他消費支出

年齡階層別 其他消費支出의 消費支出函數는 〈表 13〉에 나타난 바와 같다. 其他消費支出의 消費支出函數는 24세 이하, 40~44세 및 55 이상의 家計에 있어서는 비교적 說明力이 높은 편이었으나 그 이외의 年齡階層에서는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其他消費支出이 所得보다는 다른 어떤 個人의 習慣이나 嗜好等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其他消費支出의 限界消費性向은 젊은 年齡階層의 家計가 中年層이나 老年層에 비

하여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所得彈力性도 역시 젊은 年齡階層의 가계가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모든 年齡階層에 있어서 1보다 적었다. 이러한 경향은 젊은 年齡階層의 家計일 수록 娯樂·美容 및 裝身具 等에 대한 要求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表 13〉 年齡階層別 其他消費支出의 消費支出函數

家口主 年齡	α_i		β_i	R ²	F	D-W	彈力性
24세 以下*	83. 119 (0. 452)	+	0. 046 Yp (4. 713)	0. 690	22. 213	1. 721	0. 91
25~29세*	131. 580 (0. 432)	+	0. 046 Yp (3. 086)	0. 488	9. 520	1. 633	0. 86
30~34세*	188. 302 (0. 735)	+	0. 035 Yp (2. 544)	0. 393	8. 471	1. 453	0. 83
35~39세*	167. 680 (1. 205)	+	0. 027 Yp (2. 803)	0. 440	7. 855	1. 174	0. 64
40~44세	626. 310 (4. 899)	+	0. 025 Yp (7. 762)	0. 846	60. 254	1. 306	0. 59
45~49세*	131. 890 (0. 654)	+	0. 030 Yp (2. 873)	0. 452	8. 255	1. 455	0. 78
50~54세	776. 867 (2. 431)	+	0. 024 Yp (3. 696)	0. 554	13. 663	1. 497	0. 58
55세 以上	473. 426 (1. 557)	+	0. 034 Yp (5. 466)	0. 731	29. 874	1. 609	0. 77

1) () 내는 t 統計量으로, $t_{11;0.025} = 2.201$, $t_{11;0.005} = 3.106$ 이다.

2) * 는 誤差項의 自己相關을 제거한 回歸式이다.

12) 雜費의 消費支出

雜費의 消費支出函數는 모든 年齡階層에 있어서 誤差項의 自己相關이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료를 변환하여 自己相關을 제거한 다음 추정된 방정식은 〈表1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決定係數가 全體的으로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雜費의 限界消費性向은 家口主 年齡의 증가와 더불어 24세 이하의 가계에서 30~34세의 가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45~49세의 가계까지는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50~54세의 가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30~34세 가계의 限界消費性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55세 이상의 가계였으며 45~49세의 가계가 가장 낮았다. 한편 雜費의 所得彈力性은 모든 年齡階層에 있어서 아주 彈力的이었다. 30~34세 가계의 彈力性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55세 이상의 가계였으며 45~49세 가계가 가장 낮아서 限界消費性向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家口主 年齡이 30~34세인 가계와 55세 이상인 가계에 있어서 잡비의 限界消費性向과 所得彈力性이 다른 가계에 비하여 높은 것은 젊은층의 가계에 있어서는 각종 會費나 交際와 관련된 지출

에 대한 요구가, 반면에 老年層의 가계에 있어서는 冠婚喪祭 等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요구가 다른 年齡階層에 있는 家計들보다 큰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연령계층에 있어서 아주 탄력적으로 나타난 비목은 외식비와 잡비였다. 25~29세의 가계와 45~49세의 가계에 있어서는 外食費의 彈力性이 雜費의 彈力性보다 높았으며, 그 이외의 모든

(表 14) 年齡階層別 雜費의 消費支出函數

家口主 年齡	α_1		β_1	R ²	F	D-W	彈力性
24세 以下*	- 930.387 (-3.016)	+	0.170 Yp (6.621)	0.814	43.841	1.772	3.20
25~29세*	- 974.711 (-1.716)	+	0.192 Yp (4.147)	0.632	17.199	1.271	2.93
30~34세*	-1380.681 (-2.137)	+	0.224 Yp (4.274)	0.646	18.263	1.856	3.51
35~39세*	-1015.061 (-2.276)	+	0.196 Yp (4.960)	0.711	24.606	1.465	3.07
40~44세*	- 827.184 (-2.263)	+	0.189 Yp (5.468)	0.749	29.898	1.289	2.90
45~49세*	-887.271 (-1.356)	+	0.168 Yp (3.526)	0.554	12.433	1.333	2.67
50~54세*	-1123.874 (-1.940)	+	0.201 Yp (4.812)	0.698	23.151	1.175	2.91
55세 以上*	-1134.080 (-1.169)	+	0.213 Yp (3.051)	0.482	9.311	1.282	3.10

1) () 내는 t統計量으로, $t_{11;0.025} = 2.201$, $t_{11;0.005} = 3.106$ 이다.

2) * 는 誤差項의 自己相關을 제거한 回歸式이다.

年齡階層에서는 잡비의 탄력성이 외식비의 탄력성보다 더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V. 結 論

家口主의 年齡에 따른 가계의 總消費支出 函數 및 費目別 消費支出 函數를 추정하여 總消費支出와 費目別 消費支出의 限界消費性向과 所得彈力性이 가구주의 연령변화와 더불어 어떻게 변하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總消費支出額의 限界消費性向은 젊은층의 가계에 비하여 中年層의 가계가 높았으며, 老年層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2) 限界消費性向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면, 家口主 年齡의 증가와 더불어 식료품비의 限界消費性向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外食費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限界消費性向은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냈다. 保健醫療費, 敎養娛樂費 및 交通通信費 등의 限界消費性向은 가구주의 연령이 젊은층의 가계가 중·노년층의 가계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住居費의 限界消費性向은 24세이하의 가계가 다른 가계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雜費의 限界消費性向은 가구주의 연령이 30~34세인 가계와 55세이상인 가계가 다른 연령 계층의 가계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45~49세의 가계가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家口主의 年齡階層間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비목은 敎育費로서 家口主 年齡이 25~29세인 가계의 限界消費性向이 가장 낮았으나 家口主 年齡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여 45~49세의 가계가 가장 높았으며 25~29세 가계의 약 9배 정도였다.

3) 所得彈力性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면, 모든 연령계층에 있어서 彈力的인 비목은 外食費, 가구집기·가사용품비, 敎養娛樂費 및 雜費 등이었으며, 非彈力的인 비목은 식료품비, 光熱水道費, 被服·신발비 및 其他消費支出 등이었다. 家口主의 年齡階層間에 있어서 비교적 큰 차이를 나타낸 비목은 주거비와 교육비로서, 주거비의 所得彈力性은 가구주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계와 50~54세인 가계에 있어서만 彈力的으로 奢侈財의 性格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육비의 所得彈力性은 25~29세, 40~44세 및 50세 이상인 가계에 있어서는 1보다 적었으나, 그 이외의 가계에서는 모두 약 1정도로서 中間財의 性格을 띄고 있었다.

4) 家口主 年齡階層에 따른 差異가 比較的 적은 경향을 나타낸 비목은 光熱水道費, 被服·신발비 및 其他消費支出 등이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구주의 연령변화와 더불어 각 비목의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탄력성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가구주의 연령 변화와 더불어 각 비목에 대한 소비욕구도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그 소비욕구가 가계구성원들의 성장과 관련이 있는 비목들일 수록 가구주 연령에 따른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參 考 文 獻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1970~1987년.

經濟企劃院, 物價年報, 1970~1987년.

金美香, 都市家計의 食料品 消費構造分析, 嶺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9.

金英淑, 王仁淑, 都市家庭의 被服類 消費支出 分析, 大韓家庭學會誌, 第27卷, 第4號, 1989, 21~39.

朴聖炫, 回歸分析, 大英社, 1989, 327~329.

裴然秀, 韓在淑, 金正淑, 家計分析에 있어서 Engel Curve의 函數 形態에 關한 研究, 大韓家政學會誌 第28卷, 第4號, 1980, 126~145.

徐相穆, 民間消費支出 形態의 分析, 韓國開發研究, 第2卷, 第4號, 1980, 126~145.

- 薛鳳植, 韓國家計의 消費行爲, 創文閣, 1978.
- 崔銀淑, 家計消費支出의 構造變化와 決定要因分析,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6.
- Abdel-Ghany, M. and Foster, A. C., Impact of income and wife's education on family consumption expenditur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Vol. 6, 1982, 21~28.
- Ando, A. and Modigliani, F.,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3, No. 1, 55~84.
- Cochrane, D. and Orcutt, G. H., Application of least squares regression to relationships containing autocorrelated error term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 44, 1949, 32~61.
- Dardis, R., Derrick, F. and Lehfeld, A., Clothing demand in the United States : A cross-sectional analysi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0, No. 2, 1981, 212~222.
- Eastwood, D. B., *The economics of consumer behavior*, Allyn and Bacon, Inc., 1985.
- Fisher, J., Income, spending, and saving patterns of consumer units in different age group, *Econometrica*, Vol. 20, Jan. 1952, 47~70.
- Fisher, J., Family life cycle analysis on research on consumer behavior, *Econometrica*, Vol. 23, Jan. 1955, 28~35.
- Fisher, R., Research on household behavior,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2, March 1962, 19~63.
- Foster, A. C., Abdel-Ghany, M. and Ferguson, C. E., Wife's employment-Its influence on major family expenditur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Vol. 5, 1981, 115~124.
- Friedman, M., *A theory of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 Hafstrom, J. L. and Dunsing, M. M., Satisfaction and education : A new approach to understanding consumption pattern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 No. 1, 1972, 4~12.
- Hager, C. J. and Bryant, W. K., Clothing expenditures of low income rural familie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Vol. 11, No. 2, 1977, 127~132.
- Hassan, Z. A.,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s in Canada, *Canadi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22, No. 2, 1974, 61~78.
- Horton, S. E. and Hafstrom, J. L., Income elasticities for selected consumption categories : comparison of single female-headed and two parent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3, No. 3, 1985, 292~303.

- Johnston, J., *Econometric methods*, 3rd ed. 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1984.
- Keynes, J. 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New York, 1936.
- Lee, F. F. and Phillips, K. E., Differences in consumption patterns of farm and nonfarm household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43, 1971, 573~582.
- Liviatan, N., Errors in variables and Engel curve analysis, *Econometrica*, Vol. 29, No. 3, 1961, 336~362.
- Lydall, H., Family life cycle in Income, saving, and asset ownership, *Econometrica*, Vol. 23, Apr. 1955, pp. 131~150.
- Podder, N., Patterns of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s in Australia, *The economic Record*, Vol. 47, 1974, 379~398.
- Prais, S. J. and Houthakker, H. S., *The analysis of family budget*, second impres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 Strober, M. H. and Weinberg, C. B., Working wives and major family expenditures,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4, 1977, 141~146.
- Summers, R., A note on least squares bias in household expenditure analysis, *Econometrica*, Vol. 27, 1959, 121~126.
- Wagner, J. S., *Family clothing consumption; A cross-sectional comparison of family life cycle and family composition models*, ph. D.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 1982.
- Wagner, J. S. and Hanna, S., The effectiveness of family life cycle variables in consumer expenditure research,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0, No. 3, 1983, 281~291.

Summary

A Study on the Changes of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According to the Age of the Head of Household

Jeong-Sook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change of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according to difference of the age of the head of the household. The data used in analysis are time-series. The data are statistics from Urban Household Economy Survey published by the Economic Planning Board, dating from 1975 to 1987.

The income of household and consumption expenditure materials were deflated as consumer price index to exclude the influence of prices, and the influence of household composition are considered to deflate as the size of the household under assumption of homogeneity.

The consumption expenditure items were categorized to 12 relatively large range items. The time-series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Two Stage Least Squares and the Ordinary Least Squares.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analysis.

The income elasticity of demand and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of each category showed big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age of the head of household. Such categories were foods, housing, education and miscellaneous. The categories which showed relatively small differences were fuel, light and water charges, clothing and footwear,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and other consumption expenditure. Foods and housing was differed by the age of the head of the household. Education was differed by the age of the head of the household.